



가가 참가했는데, 특히 대만의 모 대학교수가 중탕 시연을 보이는 장면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행사였다.

한 : 세 번째 주제와 관련, 한국 내에서 뉴질랜드산 녹용의 원산지 둔갑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뉴질랜드로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인데, 전에도 한국에서는 수출되는 녹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요구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당시 답변을 이해하나 한국정부가 수입 의약품 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규정하도록 뉴질랜드 정부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또한 북미지역 녹용이 제 3국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문제도 한·뉴 양국간 정보공유 및 교류를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뉴 : 이 문제는 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시의 위변조 등을 감안하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순록뿔 감별기술을 개발했다. 또 이보다 더 발전된 품종별·국가별 녹용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법도 1~2개월 안에 개발될 예정이다.

한 : 그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고무적인 일이다. 적어도 단속 단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요구시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인가?

뉴 : 시장을 투명화 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기술이전은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품종별·국가별 식별법도 완료되어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완료되면 그 사실을 통보해 주겠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 협의하자.

한 : 기술교류에 있어 양국 농가들간 상호방문에 의한 소규모 세미나 등이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뉴 : 좋은 방안이다. 그같은 행사를 통해 녹용의 효능 등에 관한 기술교류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의 관심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공동관심사 논의

한 : 오는 7월 한국에서는 100여 마가 출품되는 우수사슴선발대회가 열린다. 뉴질랜드 내 혈통개량 및 녹용 품질판정 전문가가 심사위원 및 강사로 참여토록 주선해 줄 것을 제안한다.

뉴 :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추후 세부사항을 협의하자.

한 : 한국에서는 사슴고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사슴고기 생산 및 이용에 관한 많은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축적된 사슴고기 관련 정보들을 습득했으면 한다. 뉴질랜드의 녹용산업 개척 과정도 알고 싶다.

뉴 : 한국양록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사슴요리 사진들을 보았다. 매우 먹음직했다. 사슴고기에 관련된 모든 기술교류는 가능하며 구체적 방안을 연구해 보자. 뉴질랜드의 사슴고기 산업형성도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야생 사슴을 수렵하는 시즌에만 고기공급이 가능했는데, 이후 상시 소비시장을 개척했다. 주로 독일 등 유럽시장으로 수출을 해 왔는데, 최근에는 미국 등

제 3국 시장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한 : 유럽 지역에서의 사슴고기 소비 형태는 어떠한가? 고기 자체이용과 가공이용의 비율은?

뉴 : 스테이크 형태의 고기 자체 이용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식육점 등에서 부위별 선호부위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사슴고기는 요리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개발 차원에서 뉴질랜드는 유럽에 조리 전문가를 파견, 요리 시

연 및 시식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뉴 : 녹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면제 문제를 과거에도 논의

한 바 있다.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녹용 밀수 등을 감안할 때 특소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 : 특별소비세 관계는 정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 생각한다.

뉴 : 최근 한국으로 수출되는 녹용 중 생녹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양록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한 : 대부분 용도의 불법유통을 목적으로 수입된다고 보며 주목하고 있다. 한국양록협회가 세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불법유통 색출 활동을 전개했던 2002/2003년도에 생녹용 수입량이 현저히 줄었던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이는 수입 생녹용의 불법유통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회가 생녹용에 한해서라

도 차별화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뉴 : 불법유통되는 녹용의 판매형태는 어떠한가?

한 : 전지상태에서 이미 국산으로 둔갑되고 이후 최종 소비자 판매 단계에서는 절단 포장되고 있다. 한국산 녹용 판매과정과 비슷하다.

뉴 : 생녹용 수출 증가는 뉴 가공업자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도 추후 협의했으면 한다. 국가별 원산지 식별 기술이 실용화되면 더욱 효과적인 제어가 이루어질 것이다.

뉴 : 한국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돌아보았다. 한국산 건조녹용과 생녹용이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같은 판매형태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는가?

한 : 녹용 판매에 대한 법적 적용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국내 농가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건조된 녹용이든 생녹용이든 용도와 포장, 홍보문구 사용 등에 따라 의약품과 축산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뉴 : 녹용이 한약재가 아닌 식품으로 이용 확대되는 것을 한국양록협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 한약 시장도 중요하나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녹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 :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본다. 오늘 제기된 방안들을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세부 추진방안과 의견들을 대사관을 통해 전하겠다. 다음 협의회에서 보다 진전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한 : 많은 정보교류가 이루어진 유익한 만남이었다. 실질적인 교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한뉴 양록산업 공조에 대해 협의중인 양국 실무자들

강원도 깊은 산속, 청정지역에서 약초꾼이 직접 캔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고병지 한방진품

국산녹용, 국산 한약재로 달여야 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약효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강원도 오대산, 22가지 한방진품으로 확인하십시오.

강원약초영농조합

대표 박 증 속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7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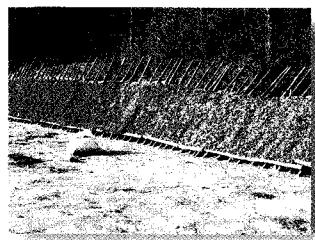
전화 : (033) 335-7437

335-1117

휴대폰 : 011-369-5354

농협 : 313065-51-080273

예금주 : 약초조합



▲수집한 당귀를 태양건조하고 있는 모습



▲꼼꼼히 품질을 검사하고 있는 박증속사장



▲약초 집하장



▲고병지 약초 농산물